

사람 신약 기술 입힌 동물약... K-제약 미래 먹거리 부상

대웅팻, 우르소데옥시콜산 기술 동물용 'UDCA정 50mg'에 적용 HK이노엔, 동물용·인체용 함께 '원 소스 멀티 유즈' 전략 펼쳐 지엔티파마, 반려견 치매약 개발 해외시장 진출 위한 체제 구축



'베아솜' /대웅그룹



'제다큐어' /지엔티파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물의 약품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구충제나 영양제나 위주였던 동물약 시장은 이제 사람의 신약개발 기술을 이식하는 첨단 바이오의 경연장이 됐다.

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그룹은 동물용 치료제부터 의료가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대웅제약과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는 동물용 의료가기 '베아솜'을 새롭게 선보였다. 시지바이오는 대웅그룹 특수관계사로 미용성형, 상처치료, 뼈 및 척추, 내외과 분야에서 쓰이는 의료

기기를 개발해 왔다. 베아솜은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다. 1도 화상, 건조함, 창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해 준다. 엑소솜, 성장인자 등을 포함하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에는 특수관계사 대웅팻에서 'UDCA정 50mg'을 발매했다. 인체용으로 검증된 대웅그룹만의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기술력을 동물용 의약품에 적용한 것이다. UDCA정 50mg은 소화장애·고양이 맞춤형 저용량 제품으로 대웅팻은 기존 UDCA정 200mg에서 제품군을 세

분화했다. 반려동물의 체중과 상태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해야 하는 임상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대웅팻은 세계 최초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 억제제 계열 반려견용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트'도 개발해 왔다. 제36호 국산 신약 엔블로의 기전을 활용한 파이프라인이다. 지난해 말 국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올해 안에 품목허가 승인, 오는 2027년 출시 등이 목표다.

HK이노엔은 동물용 의약품 성공을 인체용 치료제 개발의 지렛대로 삼는 '원 소

스멀티 유즈' 전략을 구사하며 자체 개발 물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투트랙 전략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HK이노엔은 지난달 반려견용 먹는 아토피 치료제 'IN-115314'에 대한 임상3상을 마무리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반려견 아토피 시장은 글로벌 비파마조에티스가 차지하고 있다. IN-115314는 1일 1회 투여만으로 초기 빠른 반응을 보였고 가려움증 개선 효과가 지속되는 차별성을 갖췄다. 재발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 특성을 정조준해 투약 편의성과 치료 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HK이노엔은 인체용 연고 제형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IN-115314에 대해 국내에서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임상1b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국내 바이오 벤처 지엔티파마는 일찍이 국내 최초로 반려견 치매 신약 '제다큐어'

를 개발한데 이어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지엔티파마는 올해 4월 유럽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 후보물질인 '크리스테살라진'의 제조공법에 대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 해당 특허로 지엔티파마는 제다큐어의 핵심 원료를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유럽 동물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아일랜드 사벨파마와 cGMP 생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2분기까지 제다큐어의 cGMP 수준의 글로벌 생산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동물의약품이 부업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공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K 동물약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 점차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성에피스홀딩스, '중국 R&D 센터' 가동

첫 해외 연구개발 거점 현지 인프라·인재 활용 예정



'삼성 바이오에피스 차이나'가 입주해 있는 중관촌 생명과학원 전경 /삼성에피스홀딩스

삼성의바이오투자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중국 연구개발 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본격화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 창핑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 차이나(중국 R&D 센터)'를 공개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중국 R&D 센터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첫 해외 연구개발 거점이다. 항체·약물 접합체(ADC) 기술 플랫폼 확보와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 특화형 조직이다.

이와 함께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현지우

수한 연구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베이징 창핑은 바이오 첨단 기술산업단지인 '중관촌 생명과학원'이 위치해 있고 베이징대, 칭화대 등 명문 대학이 밀집한 바이오 최적지다.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사장은 "앞으로 중국 바이오 생태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혁신 신약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 등 신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트룩시마', FDA 상호교환성 획득

美 리튬시판 시장 공략 탄력

측면에서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성분명: 리튬시판)'에 대한 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리튬시판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FDA 상호교환성 지위를 획득한 첫 사례로, 트룩시마는 최초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에 부여되는 독점권도 확보하게 됐다.

트룩시마는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혈액암 치료제이며 미국에서 비호지킨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관절염,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모든 성인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상태다.

상호교환성 지위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의 교체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트룩시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교체 사용해도 효능과 안전성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상호교환성 획득을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 미국 리튬시판 시장 내 제품 신뢰도와 지배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올해 2월 기준 미국에서 35.8%(처방량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시장 진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포함한 글로벌 비파마 제품들과 경쟁하며 거둔 성과로, 국산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임상적 처방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의료진들에게 트룩시마 처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불면증 신약 '데이비고' 국내 상륙

SK케미칼, 한국에자이와 협력



고흥병 한국에자이 대표(왼쪽)와 SK케미칼 박현선 파마사업 대표가 '데이비고' 코프로모션 계약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케미칼

국내 첫 '오렉신 차단' 기전 불면증 신약 '데이비고'의 출시를 앞두고 한국에자이와 SK케미칼이 손을 잡았다.

SK케미칼은 한국에자이와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은 300명 이상 병·의원에서, 한국에자이는 300명 이상 의료기관에서 프로모션 활동을 담당한다. 데이비고의 전국 유통은 SK케미칼이 전담한다.

데이비고는 램보렉산트 성분을 처방한,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길항제(DORA) 계열 약물이다. 오렉신은 뇌에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신경물질이다.

데이비고는 오렉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해 과도한 각성 신호를 낮추

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과각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수면 유지에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갖췄다. 진정 작용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기존 수면진정제와 차별화된 것이다. 현재 국내 불면증 치료제는 대부분 수면진정제 계열이다.

양사는 불면증 신약 데이비고 공식 발매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적극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100% 순면 생리대 '쫄피 리얼순면' 출시

LG유니잡이 아마트와 협업해 실속형 생리대 '쫄피 리얼순면'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쫄피 리얼순면은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에 100% 순면 소재를 적용한 제품이다.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에도 피부에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독일 피부과 학연구소에서 다마테스트를 통해 최고 안전 등급인 엑셀런트를 획득하기도 했다. 종류는 중형, 대형 등 2종이다.

LG유니잡 관계자는 "순면 생리대는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층이 많다"며 "쫄피 리얼순면은 생리대 양 옆의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100% 순면커버를 갖췄음에도 부담 없는 가격을 반영한 만큼 고객들이 순면 생리대의 부드러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백삼팩' 새 단장... 각질관리 강화

금빛 젤 제형으로 밀착력 높여



실제 인체적용시험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해당 제품을 2주간 사용한 고객들은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정돈된 느낌에 100%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스킨케어 제품이 더 잘 흡수되는 느낌'과 '메이크업이 잘 받는 피부 상태'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각질 관리 제품 '백삼팩(사진)'을 재단장한다고 1일 밝혔다.

백삼팩은 씻어내는 형태의 마스크팩이다.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정돈해 피부 결을 맑고 매끄럽게 가꿀 수 있다.

이번 재단장으로 효능과 사용감은 한층 개선됐다. 백삼 파우더가 피부 표면의 불필요한 각질을 관리해 준다. 또 설화수 핵심 원료인 '자음단'을 더해 사용 후에도 편안한 피부 상태를 구현한다. 비타민C 유도체와 PHA 성분도 처방했다.

이와 함께 농밀한 금빛 젤 제형으로 설계해 피부 밀착력을 높였다. 비틀수록 은은한 온열감이 느껴져 마치 스팀 마사지를 받는 듯한 경험까지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 브랜드 관계자는 "백삼팩은 오랜 시간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설화수 대표 제품"이라며 "각질은 물론 피부결과 광채를 정돈하는 고급 스킨 프랩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